

# 러일전쟁 시기 함경도 전투의 전개과정

조 재 곤\*

1. 머리말
2. 러시아군의 남하와 일본군의 북진
3. 러·일군의 작전구상과 편제
4. 후반기 교전상황
5. 강화조약과 종전
6. 맺음말

## 1. 머리말

러일전쟁(1904~5)은 한국 전 지역과 중북 동북지역을 두고 러시아의 남진과 일본의 대륙진출 과정에서 발생한 20세기 최초의 국제전이자 한국에서 시작되고 한국에서 끝난 제국주의 침략전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시선은 주로 중국 관내 전투에만 집중되어 있다. 또한 제물포 해전과 평안도 전투(평양전투, 정주전투, 의주전투, 압록강 도하 전투 등)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한반도 북동부에서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던 함경도 지역의 전투뿐 아니라 당시의 지역상황 등에 관한

\*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전반적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변경의 ‘잊혀진 전쟁’이었다. 동시대 영어교사이자 대한제국 황제의 구미 외교창구 역할을 했던 한국 통 헐버트(H. Hulbert)도 평안도 정주전투와 일본군대의 압록강 도하 이후 한국에서 러일간 교전은 종식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었다.<sup>1)</sup>

당시 한국 내 러일군 주력 동선이 서울-평양-정주-의주-압록강-만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군의 만주진출 이후 평안도의 전투는 소규모 게릴라전을 제하면 큰 내용이 없었다. 만주방면의 주요전투는 1904년 2월 일본군의 여순항 기습, 5월의 남산전투, 8월의 요양전투, 10월 사하전투와 1905년 1월 여순공방전, 3월 봉천(심양)대회전 등으로 이후 큰 전투는 없었다. 사할린전투도 1905년 7월 7일 남 사할린에 상륙한 일본군 13사단이 24일 북 사할린에 상륙하여 같은 날 31일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종결되었다. 반면 러일전쟁 초기부터 시작되어 일본군의 압록강 도하 이후에도 육해전으로 이어지던 함경도 지역의 전투는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종전이 공식화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투가 일정기간 지속되었던 최후의 전쟁이었다.

함경도 전투는 한국과 러시아의 국경선과 동해에 접해 전개된 전투였다. 최근 연구에서 러시아 주요 문서보관소 자료를 바탕으로 함경도 지역 러일간의 전황을 처음으로 정리 분석하였다는데 일정한 의미가 있다.<sup>2)</sup> 한편 이 전투의 승패 여부는 러시아 측에서는 일본군의 자국 영토 진입우려라는 측면은 물론 정반대로 일본 본토진입 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일본도 이 지역이 전장 중 일본과 가장 근접지로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점으로 한 러시아 함대의 자국 영토

1) Homer B. Hulbert, 申福龍 역, 『大韓帝國滅亡史』, 平民社, 1984, 204쪽(원 저서는 1906년 London William Heinemann 출판사에서 *The Passing of Korea*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2) 심현용, 『한반도에서 전개된 러일전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중 3장 3절과 5장 2절의 내용. 그러나 이 연구는 거의 러시아 군사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이해하여 또 다른 한 축인 일본 자료와의 균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전투지형과 정황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수시침입 우려와 더불어 만주전투와는 별개로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와 사할린 나아가 시베리아 진출이라는 관건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군과 일본군 관련자료의 비교검토를 통해 함경도에서 러일 간 전투가 전개되는 실시간 상황의 정리와 작전구상과 군사 편제, 전투의 역사적 함의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자료접근의 한계 상 러시아 관련 문서는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확보할 수 없었기에 보다 치밀한 분석은 후일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2. 러시아군의 남하와 일본군의 북진

### 1) 초기 전투상황

일반적으로 러일전쟁은 1904년 2월 8일 오후 일본함대가 무력시위 차원에서 제물포의 러시아 함선 카레이즈 호를 위협 사격한 사건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보다 이틀 앞선 2월 6일 오전 12시 54분 일본군함 헤이엔고우(平遠號)가 부산항에서 동청철도 소유 러시아 상선 ‘묵텐(Мукден)’과 인근 해양에서 러시아 선박 1척을 포획한 것이 러일전쟁 최초의 전투상황이다.<sup>3)</sup> 이 사건은 일본군함의 여순 도착 이틀 전으로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가 경성우편 전신국장 다나가 지로(田中次郎)를 불러 전신선 고장을 핑계로 일본 연결선만 제한 公電 이외의 모든 전신의 3일 간 발송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당시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sup>4)</sup> 일본정부는 이미 전쟁 전인

3) 防衛省 防衛研究所, 『海軍省公文備考類』, 『日本戰時機關部記事 平遠(1)』, 1904년 4월 18일; 제정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ПРИ), ф.150, о п.493, л.1279, л.2 а, 상서 말렉스키-말레비치의 비밀 전문, 1909년 10월 2일.

4) 林權助, 『舊韓國政府와 日露戰爭』, 『三千里』, 1938년 5월호, 120~121쪽.

1월부터 비밀리에 마산포에 상륙한 일본군을 통해 부산과 마산·진남포 등 한국 내 주요 전신국 장악과 전신선 통제계획을 준비하였고, 2월 6일 마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마산의 전신국을 점령하였다.<sup>5)</sup> 일본군은 당일부터 부산·창원·충주·전주 우편·전신국의 서신왕래를 검사와 내외의 암호전문 발송도 금지하였다.<sup>6)</sup> 이후 마산과 부산의 교신이 중단되었고, 서울-의주 방면 연결 전신선도 차단되었다.<sup>7)</sup>

그런 상황에서 2월 8일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은 당일 서울에 진입하였고 2월 9일 아침 제3전대가 제물포에 정박 중인 러시아군함 바라크(Варяг)호와 카레이츠(Кореи у)호를, 밤에는 제2전대가 중국 여순항의 러시아 군함 2척을 차례로 격침<sup>8)</sup>시킨 후 10일 뒤늦은 선전조치를 포고하였다. 러일간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2월 8일 일본군은 마산 외에 후방의 주요지역인 창원, 대구, 부산 등지의 전보사를 점령했다.<sup>9)</sup> 정확한 일자 는 알 수 없지만 일본은 제물포의 러시아 전함 공격 며칠 전 어느 날 네덜란드 회사 소유 케이블과 한국정부의 전신을 의도적으로 훼손했고, 그 결과 러시아 전함의 함장들은 일본과의 관계단절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한다.<sup>10)</sup> 그 결과 2월 12일 주한 러시아공사 파블로프(A. И. Павлов)는 서울에서 퇴거하였고, 22일 일본군 평양병참사령부가

5) 外務省 外交史料館, 『韓國電信局占領一件』, 『馬山電信局占領ノ件』, 1904년 1월 22일(마산 영사 三浦彌五郎) 및 1904년 2월 8일(마산 三浦 영사→小村 외무대신), 와다 하루키는 2월 6일 아침 스시마를 출항한 제3함대 제7전대가 당일 저녁 병력을 진해만에 상륙시키고 마산 전신국을 점령한 이 사건을 러일전쟁 최초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와다 하루키,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게이엔씨, 2011, 59~60쪽).

6) 『舊韓國外交文書』 제6권, 日案 6, #7798 「日兵의 郵電司業 侵害, 負軍徵募, 物資請求 恣行에 對한 抗議」, 광무 8년 2월 10일.

7) 러시아연방국립문서보관소(ГАРФ), ф. 568, о п. 1, л. 182, л. 36, 6등관 플란손의 비밀전문, 1904. 1. 26(2. 8).

8) 후일 대한매일신보는 이 사건을 각기 '제물포 해전'과 '여순구 함락'으로 규정하고 있다(『大韓每日申報』, 1905년 1월 26일자 논설). 이 중 제물포 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가스통 루르, 이주영 역, 『러일전쟁, 제물포의 영웅들』, 도서출판 작가들, 2006이 참고된다.

9) 『皇城新聞』, 1904년 2월 11~12일.

10) ГАРФ, ф. 818, оп. 1, л. 74, лл. 1-2 об., 한국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해 외국주재 러시아 외교대표들에게 보내는 회람 통지문, 1904. 2. 20.

평양을 점령하였다. 24일에는 「한일의정서」로 한국과 동맹을 강제하였다.

개전 직후 함경도 지역 상황을 보면, 1904년 2월 4일 일본은 어전 회의에서 러시아와 교섭단절과 개전을 결정하였고, 이날 만일의 위기에 대비 함경도 일대의 일본인 老幼婦女를 원산항으로 철수시킬 것을 내밀히 전달하여<sup>11)</sup> 2월 10일 완료하였다. 일본군 제4사단 제37연대 제3대대는 2월 19일 인천에 상륙하여 3월 1일 육로로 원산에 도착하였다. 종래 이 지역을 수비하던 보병 제38연대 11중대를 대신하여 24일 후비보병 제45연대 제4중대도 합류하였다. 당시 함경도 북부는 2월 파블로프 대령을 지휘관으로 하는 우수리 기병분견대를 창설하고 소수의 러시아 기병이 두만강을 넘어 雄基 및 鏡城 부근에 출몰하는데 불과하였다.<sup>12)</sup> 3월 5일 러시아 기병이 경성으로부터 회령·길주로 향하였고, 조만간 육군이 남하한다는 보고에 따라 일본군은 거류민 보호 구실로 원산주둔병 중 2중대를 파견시켰다.

서울을 장악한 시기 일본군은 평안도와 함경도 도처에 포진하고 있었고, 새로운 육군이 이 지역으로 계속 북상 중이었다. 2월 25일 일본군과 러시아군 척후는 평양 북방 肅川에서 처음 충돌하였다. 러일 간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3월 말부터였다. 3월 13일 진남포전보국을 접수<sup>13)</sup>하고 3월 28일 평안도 정주성 부근에서 기병의 도보전으로 러시아 병사를 격퇴한 일본군은 4월 4일 의주를 점령하였다. 이어 10일부터는 압록강 연안에서 소규모의 전투가 빈번하였고, 함경도에서는 12일~14일 사이 러시아군이 경성과 길주에 도착하면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같은 달 16일에는 城津에 러시아 기병

11) 金正明 편 『日韓外交資料集成』 제5권-日露戰爭 編-, 嚴南堂書店, 1967, 36쪽.

12) 로스투노프 외 전사연구소 편, 김종현 역, 『러일전쟁사』, 건국대출판부, 2004, 457~458쪽; 參謀本部 編, 『明治 三十七, 八年 日露戰史』(제10권; 이하 '日露戰史'로 약칭함), 偕行社, 1914, 375쪽.

13) 外務省 外交史料館, 『韓國電信局占領一件』, 「鎮南浦電信局占領ノ件」, 1904년 3월 14일 (진남포 染谷 부영사→小村 외무대신).

약 30명이 침입하여 일본거류민 50여 명은 원산으로 철수하였다. 성진에는 영국인 선교사 2명과 세관원 1명만 잔류하였다. 이때 러시아군은 일본인 가옥 총 29동 및 창고와 관세창고를 불태워 버리고 전보국 기계를 가지고 다음날 오후 경성으로 퇴각하였다. 19일에는 러시아군 약 250명이 길주를 출발하여 북청으로 남진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군 제2함대가 4월 22일 원산항에 들어와 1개 부대를 성진 부근에 파견하여 적정을 탐색하였다. 그런데 일본군 보병 제37연대 제9중대가 탑승한 긴슈마루(金州丸)는 4월 25일 함경도 이원을 정찰하고 원산으로 귀항 중 新浦 동남 약 19리에 도착하였다. 이때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소속 러시아 군함은 긴슈마루에 접근하여 船名 및 국적을 묻고 승원의 퇴거를 재촉하였고, 다음날 4월 26일 오전 1시 30분 수뢰포를 발사하여 명중 침몰시킨 후 퇴각하였다.<sup>14)</sup> 또한 같은 날(4월 25일) 정오경 수뢰정 2척이 원산항에 정박하고 있던 고요마루(五洋丸, 민간 기선으로 韓商 소유의 어물을 탑재)와 前津港에 있던 하기우라마루(萩浦丸)의 선원을 강제 상륙시킨 후 수뢰를 발사하여 격침시켰다. 이때 하기우라마루에 탑승한 선원 24명은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인근 노보고로드 메드베지(медведь) 지역에 수감되었다가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후 유럽, 아프리카와 인도양을 지나 일본을 경유 귀환하였다. 이들 중 한국인은 사무원 韓得淸 등 총 9명으로 전체 포로 중 1/3 이상을 차지하였다.<sup>15)</sup>

반면 서북방면 일본군 제1군은 4월 26일부터 압록강 도하작전을 개시하여 용암포의 러시아군 주력을 압록강 대안 청국 안동현으로 퇴각시켰고, 5월 1일 압록강을 넘어 구련성과 봉황성을 차례로 함락하였다. 이로써 함경도가 한국 내의 유일한 陸海戰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5월

14) 『官報』(日本國), 明治 37년 4월 30일. 이때 일본인 사망자는 대위 2, 소위 1, 특무조장 1, 사졸 73, 통역 2명이었다. 생존자 중 군인 경상 10, 중상 1명이었고 상인과 인부는 무사하였다.

15)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ノ際浦塩艦隊元山來襲金州丸, 五洋丸, 萩浦丸遭難一件』, 『日露戰役ニ關スル個人損害要償事件調査報告』(1908년 2월 1일).

이후의 상황을 보면, 5월 18일 한국정부는 러시아와 맺은 조약의 폐기를 선언하고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기병 약 700은 포 12문으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명천 남방으로부터 2분하여 약 400기, 포 7문은 길주로, 나머지는 갑산으로 향했고 후방에 약 4천의 보병이 속행하고 있었다.<sup>16)</sup> 甲山지방으로 전진하던 러시아군은 다시 德川방향으로 퇴각하여 합쳤고, 또 吉州방향으로 전진하던 러시아군은 점차 남진하여 30, 31 양일에 걸쳐 咸興에 도착하였다. 이 기간 러시아군은 경성-크라스노예 셀로(녹둔도)-우수리스크 연결 전신선 가설을 마쳤다.<sup>17)</sup> 함흥의 러시아군은 6월 2일 전진하던 중 3일 그 척후가 文川에서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내고 高原을 지나 퇴각하였다.

6월 당시 극동주둔군 총사령관 리네비치(Линевич) 대장은 보병 8대대, 기병 1중대, 포병 3중대로 편성된 1지대로 경성-무산선을 점령한 후 남부 우수리지대 보병을 진격시켜 원산을 약취하고자 하였다. 그는 기병 14중대, 騎·山砲 6문으로 이루어진 지대를 함경도에 파견하였다. 그 목적은 무산을 지나 강계 및 초산 방향을 점령하고 일본군의 보급수송기관을 습격하여 후방을 교란시키는데 있었다.<sup>18)</sup> 한편 6월 15일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대한해협에 나타나 조우리쿠마루(常陸丸)와 와이즈미마루(和泉丸)를 격침시키고 사토마루(佐渡丸)를 포격하였고, 30일 수뢰정 4척이 또다시 원산에 나타나 항내에 정박해있던 소증기선 코우운마루(幸運丸)와 민간 소유 범선 세이사마루(淸沙丸)를 격침시켰다. 이때 일본군 수비병 1명이 부상하고 포격으로 겨루지 가옥 30호가 파손되었다.<sup>19)</sup>

16) 이에 대응하여 일본주차군 사령관은 서울주둔 후비보병 제48연대 제1대대 및 기관포 4문을 원산방향으로 파견하였다.

17) 러일전쟁전사편찬위원회, 『러일전쟁 1904~1905(제1부: 1904~1905년 한반도 동북지역에서의 전투상황』, 상페테르부르크, 1910(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그리고 한반도』, 2012, 38쪽 참조).

18) 『日露戰史』, 387쪽.

19) 『日露戰史』, 383쪽. 그런데 幸運丸은 그해 3월 20일 함흥의병 시 진압차 출동한 일본군

해상과는 달리 6월 하순 이래 함경도 내륙지역에서 러시아 육군의 활동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 결과 6월 22일 일본은 원산-인천간 전화를 개통하였다.<sup>20)</sup> 러시아군의 육상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군은 원산 동·북의 산에 요새를 건설하였다.<sup>21)</sup> 이곳에는 야간통행 금지령이 내려져 20년 이상 원산항만장을 하던 한국관리도 일본당국이 발행한 통행권을 소지해야만 했다.<sup>22)</sup> 7월 초 함경남도의 러시아군은 검산령을 넘어 평안도 강계로 돌아갔고, 덕천에서 장진으로 향하는 군대는 만포진을 경유해 청국 경내로 들어갔다. 이 기간 7월 9일 駐劄軍司勳官은 한국정부의 비용으로 지방관 및 일본 군대의 감독 하에 경성-의주간 도로 수복을 결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방관에 훈령하여 농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히 결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7월 하순에 이르러 러시아군은 다시 남진하여 8월 1일 경성-성진간 진신선 가설에 착수하였다. 그러던 중 러시아 기병 400여 명이 8월 2일 함흥, 4일 정평, 5일 영흥에 도착하여 영흥에서 한국인 5명을 살해하였고<sup>23)</sup>, 약 1,000기가 강원도 접경인 高原까지 육박했다. 8일 오후에는 약 200명의 파블로프 대령 부대 정찰대가 덕원 북방에 나타나 그 척후가 포 2문으로 일본군 경계병과 사격을 교환하다 북방으로 퇴각하였다. 9일에도 기병 약 100명이 덕원에서 일본군 척후와 격렬한 사격전 후 文川으로 퇴각하였다.<sup>24)</sup> 이날 전투에서 러시아군 사상자는 장교 이하 25명이었고 마필 2기를 잃었다. 이 기간 일본군은 원산 수비대를 교체하였고 8월 10일 보병소좌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를 원산수비대장으로 파견하였다.

---

수송의 명을 받고 함경도 西湖港에서 원산으로 귀환하였다. 『日露戰役ノ際浦塩艦隊元山來襲金州丸, 五洋丸, 萩浦丸遭難一件』, 『請願書』(운송업자 堀力太郎 → 내각총리대신 寺內正毅, 1918년).

20) 『皇城新聞』, 1904년 6월 23일.

21) Rudolf Zabel, 이상희 역, 『독일인 부부의 한국 신흠여행, 1904』, 살림, 2009, 237쪽.

22) Rudolf Zabel, 앞의 책, 264쪽.

23) 『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 10일.

24) 대한매일신보에서 이 전투를 설명하면서 러시아군(‘로국병’)을 ‘적군’으로 표현한 사실이 주목된다(『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 13일).



## 2) 일본의 제해권 확보 이후 전황

1904년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걸쳐 경흥과 경성을 경유해서 남진한 러시아군은 약 1,500기, 포 4문으로 병력면에서 일본군보다 우세하였다. 그럼에도 만주지역의 연이은 승첩에 따라 전쟁의 대세는 일본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 동해에서의 해전은 처음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의 수차례에 걸친 해양포격전을 통한 일방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8월 14일 울산만 해전에서 우에무라 히코노조(上村彦之丞) 중장이 지휘하는 일본군 제2함대의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격파로 동해 제해권을 확보하였고<sup>25)</sup>, 이를 이용하여 일본군은 파블로프 대령이 이끄는 함흥지대를 격파하고 점령지역을 확대코자 하였다. 그 결과 해안도로가 위협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9월 4일 함흥주둔 러시아 기병 1,400은 퇴각을 개시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여순의 2개 군항을 요새화하고 강력한 태평양 함대로 동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후 시베리아와 유럽에서 파견한 육군으로 일본군을 파멸시킨다는 전략이었지만 선제공격을 받고 방어전으로 끝나게 된다.<sup>26)</sup> 그 결과 블라디보스토크의 전략적 위치도 약화되었다.<sup>27)</sup> 이에 한국주차군사령관은 원산에 있는 후비 부대를 함흥으로 전진시켜 17일 도착하였고, 같은 달 24일 우가키 소좌는 기세를 몰아 咸關嶺의 러시아군을 흥원방면으로 축출하였다.<sup>28)</sup> 일본군의 첩보에 의하면 9월 중순 함경도 방면 러시아군은 경성에 약 100, 성진에 약 2천, 館南里에 약 600, 북청에 약 400이 있었고, 기병 약 2천, 포 4문이 29일 북청에 도착하여 이중 약 400의 기병이 함흥과 인접한 흥원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함경도 일본군 점령지역에는 10월 8일부로 軍政이 선포되었다.

25) 그 과정에서 우에무라 함대가 이틀간 함경도 나진항에 정박한 일이 있었다. 羅津商工會, 『大羅津』, 近澤印刷所, 1935, 4쪽.

26)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정재정 역, 『러일전쟁의 세기-연쇄시점으로 보는 일본과 세계-』, 도서출판 小花, 2010, 150쪽.

27) 大江志乃夫, 『世界史における日露戦争』, 『日露戦争』, 新人物往來社, 2003, 42쪽.

28) 金正明 편, 『朝鮮駐劄軍歴史』, 巖南堂書店, 1967, 26쪽; 『大韓每日申報』, 1904년 10월 13일.

한편 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는 11월 30일 원산 및 그 이북의 부대를 咸鏡道梯隊라 명하고 보병 소장 이케다 마사스케(池田正介)를 지휘관으로 삼아 후속 전투를 준비하였다. 이어 1905년 1월 27일 대본영은 북한방면에 투입될 후비 제2사단을 편성하고, 후비보병 제25연대 제1대대를 오사카에 기타 제 부대를 히로시마에 집중시켰다. 그 과정에서 함경도 러시아군이 1월 하순 이미 성진 이북으로 퇴각하였다는 보고를 접했다. 이에 주차군사령관은 점령구역을 확장하고자 2월 11일 이케다에게 명하여 후비보병 제32연대와 제47연대로서 27일경 전진시켰다. 이케다 소장은 원산 및 영흥지방의 후비보병 제47연대 본부 및 제2대대 제7중대를 함흥에 집결시켰고, 성진에 진출한 후비보병 제32연대는 28일 임명역을 점령하였다.<sup>29)</sup> 포대설치를 위해 3월 16일에는 「영흥만 내 군용지 수용에 관한 건」을 재가받아 영흥만 내 송전리 부근, 갈마반도, 연도 이북, 호도, 영흥만 입구에 산재한 여러 섬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sup>30)</sup>

그해 1월부터 3월 간 러시아군 상황을 보면, 만주군총사령관 쿠로파트킨(Куропаткин) 대장은 1905년 1월 일본군의 여순 점령 이래 제3군사령관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의 부대가 여세를 몰아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 방면에 유력한 병단을 진전시킬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그는 남우수리스크 지대 및 블라디보스토크 요새 수비병력을 증가시키고 편성배치 등을 수차 변경하였다. 그 결과 3월 초순경 만주군 방면으로부터 부대를 증파하여 남우수리스크 지대를 나누어 시코프 지대, 다위자 지대, 파타쉬 지대, 라즈돌리노예 지대 및 총 예비대로 하여 주력을 라즈돌리노예 부근에 집결시켰다.<sup>31)</sup> 한편 2월 성진에서 길주를 거쳐 북방으로 퇴각한 베르노프 소장이 지휘하는 러시아 기병 3연대, 기포병(혹은 산포병) 1중대 및 기관총 부대의 주력은 경성에

29) 『日露戰史』, 400쪽.

30) 이는 블라디보스토크 해군기지에 대응하기 위한 영흥만 요새구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후 영흥만요새사령부, 포병대대, 병원 등이 편성되었다.

31) 『日露戰史』, 414쪽.

있었다.<sup>32)</sup> 3월에도 러시아군 주력은 경성에 주둔하면서, 일본군 각 부대와 대치 중이었다.

이후 러시아군은 함경도의 주을온천, 경성, 부거, 웅기, 부령과 두만강 대안의 중국 혼춘 등지에 배치되어 있었다.<sup>33)</sup> 3월 3일, 10일, 26일에 吉州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으나 러시아 기병에게 차단된 일본군은 패주하였다. 그러던 중 4월부터 우수리스크 주둔 러시아군은 두만강을 건너 대거 남진하였고, 선두부대는 4월 15일 경성 부근에 도착하였다. 5월 20일 베르노프 소장은 총사령부로부터 일본군 약 1사단이 블라디보스토크 요새와의 연락을 차단하려 두만강 방면으로 출발한다는 정보를 접하였다. 이에 그는 28일 부령의 시베리아 카자크기병 제9연대 제4중대를 무산에, 혼춘의 동 연대 본부 및 1중대를 부령에 전진시켜 6월 5일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기병 제9연대 주력도 28일 회령에 도착하였다.

반면 일본 국내의 후비 제2사단 잔여부대는 해군의 호위없이 4월 2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원산에 도착하였다. 이 기간 군사령관은 北韓軍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21일 후비 제2사단장 미요시 나루유키(三好成行) 중장이 북한방면 제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일본군 분견대 2천여 명은 성진에, 1천여 명은 단천에 도착했다.<sup>34)</sup> 그로부터 며칠 후인 5월 27일과 28일 양일에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제독이 지휘하는 일본군 聯合艦隊가 동해에서 발틱함대를 맞아 대승리를 거두었다.<sup>35)</sup> 대본영은 북한방면 러시아군을 격퇴하고자 기관포대 편성에 착수하여 6월 7일 완성하였다.<sup>36)</sup> 이같은 상황에서 대본영은

32) 『日露戰史』, 397쪽.

33) 3월 6일경 일본군 정보에 의하면 우수리스크 및 북한방면의 러시아군은 보병 21대대, 기병 24중대, 포병 7중대,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포병 16중대, 파타쉬 및 혼춘 요새 포병 각 1대, 요새공병 1중대, 수뢰 1중대, 전신 1중대, 氣球 1중대를 만들어 요새포병 8중대와 공병, 수뢰, 기구 각 1중대는 러시아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중이었다.

34) 러시아 군역사문서보관소(РГВИА), ф. ВУА, оп.??, п.10385, л.20, 1905. 5. 25.

35) 이 전투에서 발틱함대 전사자는 4,524명, 포로는 6,168명이고, 연합함대 전사자는 116명, 부상자는 570여 명이였다. 『寫真圖說 帝國聯合艦隊-日本海軍100年史-』, 講談社, 1969, 57쪽. 5월 27일 이날을 일본정부는 해군기념일로 제정하였다.

36) 『日露戰史』, 413쪽.

안동현 주둔 후비보병 제16여단을 해로를 경유하여 원산으로 수송시켰고 6월 8일 점령지역을 경성부근으로 확장하였다. 북한군은 10일부터 점차 북진하여 明川, 富澗, 吉州까지 도착하였지만 15일부터 16일에 걸쳐 러시아군이 경성에서 수성과 부령, 부거방면으로 퇴각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북한군 기병척후는 6월 20일 鏡城 및 그 부근을 22일 보병 약 2대대, 기병 1중대는 전투없이 輸城을 점령하였다.<sup>37)</sup>

이렇듯 러시아 발틱함대의 패전 이후인 6월부터 함경도 방면에서 일본군의 행동이 활발해지고 더욱이 북진 기도의 모습이 보이자 이로부터 한국북부는 물론이고 러시아 국경까지 위협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러시아 군관구사령관은 6월 26일경 아니시모프 소장에 속한 네르친스크 기병대 제1연대는 富寧과 茂山 사이에서 경계하고, 동 연대 제1중대 및 시베리아 카자크 기병 제6연대의 2소대는 富居에, 동 연대의 1소대는 蛛隅 부근, 동 연대의 1/2중대는 雄基 부근, 동시베리아 제7연대의 1중대, 네르친스크 카자크 기병 제1연대 제2중대, 騎山砲兵 1중대(4문)은 古豊山 부근, 시베리아 카자크 기병 제6연대의 1/2중대는 榛田 부근, 동시베리아병 제7연대의 2중대는 舜陶基 부근, 동 연대 동부 시베리아 산포병 제2중대는 會寧에 집중시켜 일본군에 대비하였다.

각기 전투편제를 마친 후 양국 간 육상전은 6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러시아 기병 30명이 章興坪 부근 일본군 전초의 사격을 받고 퇴각하였고, 7월 2일과 4일 獐項 서북 고지에서 일본군 척후와 러시아 소부대 간에 국지전이 있었다. 이 전투에 참가한 일본군은 보병 약 2대대, 기병 2중대, 포 3문으로, 러시아 기병대의 손해는 사망 2명, 부상 14명, 마필 손실 27기였다.<sup>38)</sup> 이후 러시아군 대부분은 7월 상순부터 최후 방어선인 두만강 지역 회령을 향해 퇴각하여 일부는 多葛嶺, 白沙峰, 富寧, 茂山 등지에 산재하고 있었고, 주력은 고평산에 집결시켰다. 이후 함경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러일 간에는 대규모 전투와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교차 전개되었다.

37) 『日露戰史』, 425쪽.

38) 『日露戰史』, 429쪽.

### 3. 러·일군의 작전구상과 편제

#### 1) 韓國分遣隊(러시아)

러시아군의 한국분견대 편성계획은 1904년 7월 2일 프리아무르 군 참모장이 심양(묵텐)의 극동총독 알렉세예프에게 보낸 보고서에 처음 나타난다. 그는 한국 주둔 일본군 부대의 측면과 후방을 상대로 한 분견대는 제2동시베리아보병사단 9개 대대 및 8개 대대로 구성된 1개 보병여단, 즉 도합 17개 대대로 구성해야 하며, 4개 산악포 중대(속사포)와 대포 32문, 4개 야전포중대(속사포)와 대포 32문, 4개 백인중대로 구성된 1개 기병연대와 1개 공병 대대를 보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모장은 일본군과의 첫 번째 충돌은 국제항인 원산 근처에서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진군 착수 약 2개월 지나 러시아군이 원산을 점령한 뒤, 분견대는 평양 또는 서울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9)</sup> 향후 분견대가 함경도 지역에서 평양과 압록강으로 진군하면 일본군의 후방퇴로를 차단함으로써 만주 방면 러시아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고, 러시아군이 한국 남부로 진격하여 서울 점령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러시아 측의 한국분견대를 활용한 측면공격 작전은 수세적 측면과 공세적 측면이 당시까지는 병존하고 있었다.

그의 견해는 당시 일본은 한국에 소규모의 수비대만을 남겨 놓고 전체 육군을 만주의 전쟁터로 파병하였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 잔류하고 있는 예비대는 거의 고갈된 상황을 염두에 두면, 지금 분견대를 편제하여 한국으로 진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참모장은 이런 행동으로 일본의 군사력을 만주 전쟁터로부터 유인하여 당장 만주 주둔 러시아군의 작전을 손쉽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나아가 분견대를 진군시키면 짧은 기간 내에 한국에서 대규모의 군사적·정치적 성공을 달성할

39) РГВИА, ф.846, о п.16, л.31866, л л.26-31 о б, 프리아무르군관주 참모장의 보고서.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였다. 그는 입수한 정보에 따라 한국 황제와 나라 전체가 러시아군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결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속히 분견대를 구성하여 추가로 파병할 것을 주장하였다.<sup>40)</sup>

한편 프리아무르 군관구 사령관은 7월 11일 심양의 플루그(Флуг) 장군에게 전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르면 분견대의 한국 진군을 위해 러시아 쪽 두만강 대안에서 함경도 경성으로 가는 도로 부설 작업 후 분견대가 2개 梯隊의 형태로 경흥과 부령을 따라 한국으로 진군하는 것이 가능하며 모든 작전의 성공은 이 작업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파악하였다. 군관구 사령관은 분견대 내 8개 포병중대 중 절반은 산악포병중대여야 하며, 여단 소속 포병 중 3개 속사포 산악포병중대를 배치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청원이 승인될 경우 17개 대대, 8개 포병중대, 4개 백인중대 그리고 1개 공병중대의 병력으로 분견대를 구성할 것을 전망하였다. 참모장과 마찬가지로 군관구 사령관도 현 상황에서 지체 없이 계획을 추진하자는 주장을 개진한 것이다.<sup>41)</sup>

이에 반해 7월 27일 프리아무르 군관구 참모부 급양계 장군은 현 시점에서 특히 기병분견대 파견은 모험적인 것으로 만주 주둔 러시아 육군의 작전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인들이 대응차원에서 포병과 함께 예비대를 진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병분견대의 한국출정을 당분간 자제해야만 하지만, 군관구 내에 집결한 군단은 완편 기준으로 구성하여 원산을 거쳐 서울로 진군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2)</sup> 당시 서울의 거주 일본인 발행 신문 『大韓日報』에 러시아 수도에 체류한 공사 이범진이

40) РГВИА, ф.846, о п.16, л.31866, л л.32-32 о б, 프리아무르군관구 참모부의 전문.

41) РГВИА, ф.846, о п.16, л.31866, л л.41-42 о б, 프리아무르군관구 사령관의 금년 6월 28일자(7/11) №1495 암호 지급전문의 사본.

42) РГВИА, ф.846, о п.16, л.31866, л л.45-45 о б., 48, 프리아무르군관구 참모부 소속 급양계 장군의 보고서.

공중에 전보하여 러시아군 60만 명이 장차 함경북도로 향한다는 보도가 있었다.<sup>43)</sup>

그러나 1904년 여름 러시아군 측에서 구상한 분견대는 만주의 전황이 급박히 돌아가는 상황에서 실현되지 못하였고 이로부터 만 1년 이후인 1905년 7월 7일 남우수리 분견대를 지휘하던 아니시모프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국분견대 편성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편성 당시부터 그해 10월 중순 철병 직전 정리된 자료에 따라 각 부대의 구성과 변동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44)</sup>

분견대 예하 단위부대는 제41동시베리아보병연대, 제6동시베리아보병연대, 제7동시베리아보병연대, 포시에트 보병연대 소속 제5·제6중대, 제2동시베리아포병여단 소속 제3포병중대, 제2동시베리아산악포중대, 제12동시베리아산악포중대, 기마-산악포병 예비중대, 제2동시베리아보병사단 소속 기관총 중대, 자바이칼부대 소속 제1네르친스크(Нерчинский) 연대, 제6동시베리아카자크연대 소속 제3백인중대 소속 1/2개 백인중대 및 제4·제5백인중대, 제9시베리아카자크연대, 제3베르흐네우딘스크(Верхнеудинский) 카자크연대 소속 제3백인중대, 제9오레크부르그스크(Орехбургский) 카자크연대 소속 제5·제6백인중대, 제9공병대대 소속 제3중대 1/2부대, 제2동시베리아산악포병 군수품 저장소, 제12동시베리아산악포병 군수품 저장소, 기마-산악이동포병 군수품 저장소, 기마-회광통신부대, 제2동시베리아사단 소속 사단 수송대, 제2동시베리아사단 소속 사단야전병원, 제3호 야전 이동병원로 구성되어 있었다. 3개의 포병 중대에는 총 20문의 대포를 소유하고 있었다. 기간별 병사들의 구성은 7월 9일 10,610명, 7월 26일 10,661명, 9월 8일 이전 13,000명, 10월 14일 이전 17,223명으로 되어 있다.

43) 『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 18일.

44) 프리아무르주군관구 지휘관의 6월 9일자 № 1553 전문과 6월 10일자 № 1566 전문 그리고 분견대에 하달된 6월 24일자 № 127 명령.

## 2) 北韓支隊(일본)

러일 간의 전쟁이 시작될 무렵 대본영 육군 참모차장 나가오카 가이시(長岡外史)는 함경도 방면의 작전을 개시하여 군대를 전진시켜 한-러 국경선은 물론이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점령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같은 참모차장의 강한 주장은 대본영 육군부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니었고, 참모총장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생각과도 달랐다.<sup>45)</sup> 그 결과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

그러나 유리한 전황에 따라 1905년 초부터 함경도 방면 작전 구상이 다시 구체화되었다. 1월 18일 참모총장은 「北韓支隊司令部編成要領」을 작성하여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1월 19일부터 7일 이내에 北韓支隊 사령부를 편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요령'은 다음의 7개조로 되어 있다.

1. 북한 관내의 군대를 지휘하기 위하여 북한지대사령부를 편성한다.
2. 북한지대사령부 편제는 附表와 같다.
3. 북한지대사령부의 편성지는 東京으로 하고 그 편성 담당관은 留守近衛師團長으로 한다.
4. 북한지대사령부 요원 중 將校와 相當官은 육군대신이 이를 배속한다.
5. 병기, 피복, 糧秣, 器具, 材料에 관해서는 육군대신이 이를 정한다.
6. 편성담당관은 편성명령 발포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편성을 완결하고, 장교와 상당관 직원표 및 人馬 일람표를 육군대신 및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7. 이상 외의 편성에 관해서는 陸軍動員計劃 諸 條規에 준거한다.<sup>46)</sup>

45) 谷壽夫, 『機密日露戰史』, 原書房, 1966, 561쪽.

46) 防衛省 防衛研究所, 『陸軍省密大日記』, 「北韓支隊司令部編成要領允裁御協議」, 1905년 1월 18일. 附表(편제표)에 따르면 북한지대 사령부 편제는 지대장, 막료(참모부, 부관부), 법관부, 헌병, 관리부(위병, 치중병 예속), 경리부(金櫃部, 糧餉部 예속), 軍醫部, 獸醫部 등으로 되어 있고, 중(소)장부터 대중소좌, 대중소위 및 상당관, 하사 병졸 등의 계급을 두었다.



북한지대사령부 편제를 마친 후 대본영은 2월 후비 제2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일부를 증파하여 북한방면의 점령구역을 확장할 것을 명하여 병참부 요원 및 咸鏡道梯隊(3월 10일 北關支隊로 개칭)를 전진시켰다.<sup>47)</sup> 사단장 미요시 나루유키 지휘의 보병 11대대, 기병 1중대, 포병 4중대, 공병 1중대였다. 이어 3월 31일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북한지대 작전계획을 입안하고 그것을 內奏하였다. 그 목적은 러시아군을 한국선 및 만주로부터 축출하고 필요한 토지를 점령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 즉, 북관과 우수리스크 방면의 러시아군에 대해 한국 방어를 위해 1~2개 사단을 두만강 부근에 파견하고, 정황이 허락한다면 만주군 일부와 북한에 있는 團隊로 별도로 1군을 편성하여 해군과 협력하여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부근을 점령한다는 것이다.

참모총장은 북한방면의 러시아군을 구축하여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日韓議定書」에 기초한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블라디보스토크는 東洋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군항으로 이곳을 소유한다면 러시아를 영구히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48)</sup> 당시 러시아 만주군 총사령관 쿠로파트킨도 노기 마레스케가 인솔하는 대부대가 블라디보스토크 작전으로 전환하거나 후비대 공격을 위해 포시에트를 통해 吉林 방향에서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sup>49)</sup> 이보다 먼저 북한지대는 3월 초 이래 성진 인근 臨溟驛 부근에 있었다. 대본영은 히로시마에 있던 후비 제2사단의 잔여부대를 4월 10일 북한지대의 엄호 하에 성진에 상륙시키고자 하였지만, 해군 군령부가 4월 8일 싱가포르만에 도달한 발틱함대의 내습우려를 개진하였기 때문에 작전은 지연되었다.<sup>50)</sup>

47) 『日露戰史』, 664쪽.

48) 沼田多稼藏, 『日露陸戰新史』, 岩波書店, 1940, 202~203쪽.

49) Alexei Nikolaievich Kuropatkin, 『러일전쟁(러시아 군사령관 쿠로파트킨 장군 회고록)』(심국용 역),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7, 255쪽(원 저서는 스페인 Barcelona 출판사에서 *Guerra Ruso-Japonesa 1904~1905, Memorias del General Kuropatkin* 이라는 제목으로 1909년 발간되었다).

50) 그러나 발틱함대는 함란만에 들어가 4월 20일에 이르러도 출항하지를 앓았고, 우수리스크

일본군은 5월 1일 후비 제2사단을 원산 일대에 집결시켰다. 또한 만주파견 부대의 일부를 북한지대로 배속시키고, 나아가 1군을 편성하여 해군과 협력하여 1904년 이래 참모차장의 기안인 블라디보스토크를 탈취하는 계획도 다시 대두되었다.<sup>51)</sup> 6월 16일 야마가타 아리토모 참모총장은 “1. 만주군은 이미 정한 작전방침에 따라 銳意 그 실행을 기할 뿐 아니라 이를 수 있다면 兩期 전에 전면의 적을 공격을 요함. 2. 만주군의 작전과 서로 協應하여 북한방면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脅威하고 또한 樺太(사할린) 점령을 실행한다”는 작전계획을 상주하였다. 이 작전계획은 봉천회전 이후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결정된 이래 중요시된 것으로 그 중심은 제2항이었으나 실행하지는 못하였다.<sup>52)</sup> 참모차장 나가오카 가이시는 7월 1일 전 수상 가즈라 타로(桂太郎)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즉, “평화담판을 유리하게 진척시키기 위해서도 한국의 上下에 대해 제국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장차 또 육군의 능력상으로 말해도, 이때의 시비가 한국 토지 내의 적을 擊攘하고 그 영향을 조금도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제2영토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3)</sup> 일본군 수뇌부는 7월 12일 참모본부에 모여 한국의 북부지방에 군대를 진군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2개 사단을 파견하는데 동의하였다.<sup>54)</sup> 이 같은 내부 조율에 따라 한국주차군사령관은 함경도 방면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北韓支隊를 재편성하고 집결을 완료하였다.<sup>55)</sup>

---

크 방면의 러시아군은 점차 두만강을 건너 경성 부근에 도달하였다. 『機密日露戰史』, 565쪽.

51) 『機密日露戰史』, 563~564쪽.

52) 古屋哲夫, 『日露戰爭』, 中央公論社, 1970, 184~185쪽.

53) 『機密日露戰史』, 570쪽.

54) 山本四郎 편, 『寺內正毅日記』(1900~1918), 京都女子大學研究叢刊 5, 1980, 338쪽.

55) 『機密日露戰史』, 572쪽.

#### 4. 후반기 교전상황

사할린 전투 진전 무렵 러시아와 일본은 각기 한국분견대·북한지대를 편성하여 마지막 전투에 박차를 기하고자 하였다. 일본이 해양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1905년 7월 7일 군관구사령관의 명에 의해 한국 동북부에서 행동하는 군대를 한국분견대라 개칭하고 전투서열 및 임무를 변경하였다. 설치된 분견대의 임무는 가능한 장기간에 걸쳐 한국 북부를 수중에 장악하고 일본군이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 경계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군 당국은 당시 한국에 주둔한 총 2만~2만 3천 명의 일본군이 야전포와 산악포를 포함한 대포 24~40문을 보유하고 있고, 그 선봉부대가 경성과 수성에 주둔하고 1개 포병중대는 갑산에서 무산으로 이동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7월 17일 일본군 함선이 두만강 하구와 해안에 모습을 드러냈고, 용기에서는 일본 수뢰정 5척이 촌락을 포격하고 상륙하여 전신선을 파괴했다는 정보도 얻게 되었다.

이에 아니시모프(Анисимов) 소장은 7월 20일 연해주 혼성 카자크 여단장 코사굽스키(Косагоvский) 장군을 지휘관으로 하는 총 2개 대대, 11개 백인중대, 1개 기병의용군부대, 대포 4문, 공병 1개 소대, 1/2개 예비포병대 그리고 1.5개 수송대로 선봉분견대를 구성하였다.<sup>56)</sup> 분견대는 당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받고 배치되었다. 즉, 주력은 회령에 포진하고, 12.5개 백인중대와 대포 4문으로 구성된 기마부대는 로디오노프 곶(мыс Родионов)<sup>57)</sup>-富居津-富寧-茂山-지타소(Титасо)<sup>58)</sup> 전선을 점령한다. 남부 전위부대는 대포 4문에 2개 대대

56) 한국분견대 총사령관 아니시모프 소장은 선봉분견대의 전반적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치적 목적에서 그리고 적군이 우리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가능한 지속적으로 한국 북부를 장악하고 있으나,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또 어떠한 이유에서도 일본인들의 두만강 접근을 허용하지 말되, 도하는 더더욱 허용해서는 안 된다.”(РГВИА ф.ВУА, о п.??, л.28207, л л.26-27, 훈령, 1905. 7. 20).

57) 연해주 시코톱스키(Шкотовский) 지역에 위치한 곶.

58) 地[芝]陀所. 간도 璦春지역에 위치.

그리고 기마의용부대의 병력으로 古豊山 진지에 위치한다. 이때 각각 1개 중대로 이루어진 2개 선봉부대를 白沙峰과 그 인접지에 먼저 배치한다. 특별 측면분견대는 1개 대대와 1/2개 백인중대로 雄基에 주둔하면서 분견대의 좌익과 후방을 바다 방면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분견대는 7월 23일 회령과 고평산 및 부거진-부령-무산선을 점령하였다. 다음날인 7월 24일부터 러일간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본군 3개 대대와 3개 이상의 기병중대의 압박으로 파블로프 부대는 부령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다. 7월 25일 부거에서 전투가 있었지만 러시아 분견대는 일본군의 공격을 격퇴했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 1명이 전사하고 6명이 부상하였다.<sup>59)</sup> 같은 날 백사봉 부근 전투에서도 러시아군은 대위 2명, 병졸 4명이 전사하고 중령과 소위보 각 1명, 병졸 8명이 부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 1개 대대가 공격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자 분견대는 고평산으로 후퇴하고 마루이(丸井) 지대가 부거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이날, 즉 7월 25일 오전 7시 30분에 일본군 약 2개 대대는 러시아군 제7연대 소속의 한인의용군(민병대)<sup>60)</sup> 103명이 주둔하고 있었던 무산령(Мусальенг) 고갯길에 위치한 진지를 공격해 들어왔다. 그들은 1개 기병중대를 러시아군 좌익으로 우회시켰다. 오전 11시까지 버티던 의용군은 고평산 방면의 등천골(Тынченгори) 고갯길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일본군도 무산령 고갯길의 북쪽 기슭으로 퇴각했다.

그러나 당시는 장마철로 7월 23일 이래 강우로 강물이 팽창하고 교량이 유실되었다. 러시아군은 부족한 식량사정 때문에 현지 징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소의 전염병 발생으로 주민들로부터 수레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 결과 군사행동 기간 동안 분견대에게 공급될 예정이었던 전체 식량의 2/3 이하만이 운송되었다.<sup>61)</sup> 25일의 강풍호

59) 『日露戰史』, 444쪽.

60) 한인의용군 창설계획은 이미 1904년 11월 연해주 군관구의 코르프 중령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대한제국 정부의 반대와 전황의 악화로 중단된 바 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심현용, 앞의 책, 176~180쪽 참조.

61) РГВИА, ф.846, о п.16, л.27184, л л.1-27 о 6, 지리-통계부문.

우로 대소 하천이 불어 일본군 후방연락도 전부 단절되었다.<sup>62)</sup> 태풍으로 다음날인 7월 26일 분견대에 소속된 각각의 러시아 부대들도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 회령-경흥간 도로는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고 전신선은 파괴되었으며 모든 개천들은 도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군 주력이 구축해놓은 두만강 주요 다리는 강물에 의하여 완전히 떠내려갔다. 이러한 교량 부재와 식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분견대장은 포시에트 연대 소속의 단 2개 중대만을 옹기로 파병한 뒤, 향후 식량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제41연대를 두만강의 좌안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다시 7월 29일 松坪 부근의 전투에서는 이시이(石井) 소좌의 부대는 러시아군에 승리하였는데, 반면 일본군도 전사 5, 부상 23, 포로 1명을 남겼다. 이날 松酒洞과 五柳洞 부근에서도 전투가 있었다. 특히 일본측 기록에서도 일본군 2개 중대가 참여한 오류동 동북고지 전투는 한국인 의용군과 러시아군이 연합하여 일본군과 매우 격렬하게 전투하였지만 패퇴하였다고 되어 있다.<sup>63)</sup> 당시 러시아 군사령관의 입장은 두만강 지역으로 북상하는 일본군들을 강력히 저지하는데 있었지만, 러시아군이 밀릴 경우 치열한 전투를 피할 것을 명령하였다. 분견대장 아니시모프 장군이 한국 북부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 때문이었다.

8월 5일 무산령으로부터 전진한 일본군의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6개 중대, 2개 기병부대 그리고 대포 2문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러시아 경비부대를 격퇴하고 고풍산을 점령했다. 그러나 8월 7일부터 8일의 이틀간 갈포령 부근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채 러시아군의 화력에 의해 격퇴되었다. 이후 당분간 전투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이때부터 8월 31일까지 일본군은 공격해 들어오지 않았으며 러시아와 일본 양측이 실시했던 정찰의 결과 소규모의 충돌만이 발생했다.

8월 15일 주차군사령관은 후비 제2사단장에게 점령구역을 두만강까

62) 『日露戰史』, 445쪽.

63) 『日露戰史』, 449쪽.

지 확장하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점차 점령구역을 확장하라는 훈령을 전달하였다. 8월 16일에는 2척의 일본 어뢰정과 순양함이 로디오프 곳의 러시아 초소에 함포사격을 가했다.<sup>64)</sup> 20일에는 일본군 보병 2중대, 기병 1중대가 오류동으로 향해 전진하였지만 시베리아 카자크 기병 제9연대의 소초가 이를 격퇴하였다.<sup>65)</sup> 8월 30일 비가 줄어들자 일본군은 다시 전진을 개시하였고 러시아 선견부대의 모든 전선을 공격했다. 그러다가 8월 31일 제6동시베리아보병연대 소속 15개 중대의 화력지원을 받고 있던 발레예프(Балеев) 중령 휘하의 정찰대는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다(회령 昌斗嶺 전투). 이 과정에서 일본의 군사력이 우월하였지만, 러시아군 정찰대는 합류한 한국인 민병대와 함께 연합 전술을 전개하여 일본군의 우익을 격퇴하고 4명을 포로로 생포했다.<sup>66)</sup>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은 보병 4대대, 기병 2중대, 포 12문, 공병 1중대, 전투 총원 약 4,200명으로 그중 사상자는 장교 이하 92명이었다. 반면 러시아 하사졸 5명을 생포하고, 마필 5기, 소총, 탄약, 피복 및 천막 등을 노획하였다.<sup>67)</sup> 같은 날 부거방면 전투에서는 일본군은 하사졸 전사 3명, 소위 1명, 하사졸 4명이 부상하였고, 갈포령으로 향한 척후도 러시아 보병 약 50명의 사격을 받아 하사졸 6명이 전사하고 부상 병졸 3명을 남기고 퇴각하였다. 이날부터 일본군은 러시아 선봉부대의 정면을 따라 공격을 실시했다. 이어진 이틀간의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하급병사 8명이 전사하고, 장교 3명과 하급병사 31명이 부상당했고, 9월 2일 총사령관 리네비치 대장은 회령의 진지로 후퇴명령을 내렸다.

9월 3일 일본군 독립기병은 회령으로 퇴각하는 러시아군을 추격하여 그 중 제1중대는 성내로 진입하였다. 러시아 기병 1縱隊는 회령-행영의 도로를, 다른 1중대는 회령-고령진으로 퇴각하였고 일부는 두만강

64) 앞의 『러일전쟁 1904~1905(제1부 1904~1905년 한반도 동북지역에서의 전투상황)』, 95쪽.

65) 『日露戰史』, 457쪽.

66) РГВИА, ф.846, о.п.16, л.27184, л.л.1-2706, 지리-통계부문.

67) 『日露戰史』, 469쪽.

을 건너 후퇴하였다. 일본군 전위는 회령까지 진입하게 되었다.<sup>68)</sup>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8명의 하급병사가 사망하였고 장교 3명과 하급 병사 33명이 부상을 입었다.<sup>69)</sup> 일본군의 손해는 장교 2명 전사, 하사 졸 2명 부상, 마필 8기였다.<sup>70)</sup>

이후 우천으로 전투는 또다시 중지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9월 5일자로 미국 포츠머스에서 러일 간의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는 보도가 다음날 전장에 전달되었고, 9월 7일 일본군 후비 제2사단장은 전투행위를 중지시켰다.<sup>71)</sup> 당시 후비 제2사단장은 군사령관의 지시로 러시아 분견대 총사령관과 휴전을 협의하였지만 경계선에 관한 논의가 일치되지 않아 현상유지 상태에서 전투만 중지되었던 것이다.

## 5. 강화조약과 종전

함경도와 두만강 일대의 홍수로 전쟁이 일시 소강상태에 들어설 무렵인 1905년 7월 26일 극동주둔군 총사령관 리네비치 대장은 분견대장 아니시모프 소장에게 한러 접경 러시아 지역 영토 고수를 강하게 지시하였다. 그는 분견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일본군들이 두만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며, 더욱이 국경 러시아 지역인 노보키예스크(Новокиевский; 한국명 烟秋로 현 크라스키노)에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을 역설하였다. 총사령관은 일본군이 러시아군을 한국으로부터 밀어내는 것만을 원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국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야만 한다고 지시하였다.<sup>72)</sup> 총사령관은 다시 7월 27일 파블로

68) 『日露戰史』, 482쪽.

69) РГВИА, ф.846, о п.16, л.28225, л.75.

70) 『日露戰史』, 483쪽.

71) 『日露戰史』, 486쪽.

72) РГВИА, ф.ВУА, о п.??, л.28207, л л.54-57.

프 대령을 비롯한 분견대의 주력이 계속 퇴각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러시아군 전략상 매우 불리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힘의 열세를 인정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적군을 지연시키면서 퇴각할 것이며, 오랫동안 무산을 장악하여 러시아군 수중에 보유할 것을 지시하였다.<sup>73)</sup>

당시 러시아 분견대는 한국 북부의 견고한 점령을 요구받았지만 급량기지와 거의 단절된 상태로 충분한 식량확보가 불가능하였다. 부득이 아니시모프는 8월 9일 제9시베리아카자크연대 소속의 백인중대만 회령을 방어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대는 두만강 대안 防川을 거쳐 도하용 선박시설이 갖추어진 훈춘(Хунчун)으로 퇴각할 것을 명령했다.<sup>74)</sup> 이후 두만강 한국방면에 있던 러시아군은 소극적 방어전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점진적인 철수를 진행시켰다. 그러던 중 9월 1일부터 러일 간 강화담판 교섭이 시작되었다. 이날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만주 및 두만강 방면에 있는 양국 군대 간에 일정한 거리(구획지역)를 정할 일”이었다.<sup>75)</sup> 그러나 같은 기간 러시아군은 제17보병사단 소속의 제1여단을 니콜스크(Никольск; 秋豊, 현 우수리스크)와 라즈돌노예(Раздольное;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중간의 교통분기점)로부터 한국으로 파병하라는 총사령관의 명령이 접수되었고, 분견대장은 상황이 명료해지는 시점까지 위 여단을 노보키엠프스크에 잔류시키자고 요청했다. 강화담판 진행간 일본은 후비보병 제2사단의 점령구역을 두만강까지 확장하고자 8월 31일 고풍산을 출발하여 9월 2일 회령점령 후 전진을 계속하였다.<sup>76)</sup>

그 과정에서 9월 5일 러일 강화담판 위원 간에 휴전에 관한 「포츠

73) РГВИА, ф. ВУА, оп. ??, л. 28207, лл. 39-40. 8월 1일 하바롭스크의 흐레사티츠키(Хрещатицкий) 장군도 일본군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공격할 경우, 러시아 부대들은 치열한 전투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사실을 다시 환기시켰다. РГВИА, ф. ВУА, оп. ??, л. 28207, л. 44.

74) РГВИА, ф. ВУА, оп. ??, л. 28207, лл. 45-47.

75) 『大韓毎日申報』, 1905년 9월 9일.

76) 沼田多稼藏, 앞의 책, 224쪽.



머스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 양국 군대의 전투는 강화조약 체결 순간까지도 계속되었다. 이에 러시아군과 일본군은 각 부대에 휴전을 명하였다. 그런데 당시 육전의 최고지휘관인 만주군 총사령관 쿠로파트킨의 회고록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전쟁을 수행하는 많은 병사들도 ‘혁명전선’에 몰들어 있었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인기없는 전쟁에 열정없이 싸워야만 했던 것이다.’<sup>77)</sup> 이러한 안팎의 혼란은 무엇보다도 니콜라이 2세가 전쟁의 종결을 급선무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건파 비테(Сергей Юльевич Витте)가 실각하고 베조브라조프(А.М. Безобразов) 등 강경파의 주도로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고<sup>78)</sup>, 결국 발틱함대의 궤멸 이후 재반격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미국 대통령 테오도어 루즈벨트(T. Roosevelt)의 권고로 그해 9월 급히 강화를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 대본영은 9월 6일 전군에 휴전을 명하였고, 한국주차군사령관은 다음날인 7일 함경도 회령 남방 비석동에 있던 후비 제2사단장 미요시 나루유키에 명하여 위원을 정해 북한방면 러시아군사령관 혹은 그 위원과 상의하여 휴전조건의 세목을 협정토록 하였다. 따라서 후비 제2사단장은 8일 리네비치 대장에게 휴전조건 세목의 협정에 관한 위원을 정해 9일 정오 회령 북동지역 鐵洞에서 회견하자는 서한을 러시아군 전초를 통해 전달하였다.<sup>79)</sup> 그 결과 9월 16일 함경도 방면 일본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휴전에 관한 협정을 맺게 되었다.<sup>80)</sup>

77) 『러일전쟁(러시아 군사령관 쿠로파트킨 장군 회고록)』, 87쪽.

78) 위의 책, 328쪽. 1920년대 러시아 역사가 M. 파크롭스키는 베조브라조프 일파 주도의 ‘군사봉건적 제국주의’와 재무상 비테 주도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로 규정한 바 있다. 와다 하루키,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제이앤씨, 2011, 81쪽.

79) 『日露戰史』, 502~503쪽.

80) 그러나 같은 기간인 9월 14일 휴전과 관련한 대한제국 황제의 입장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한국 공사 이법진을 통해 니콜라이 2세에게 전달되었다. 서한의 핵심은 양국 군대의 휴전 체결은 희망을 상실하게 했고, 일본인들은 이제부터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우려하면서, 가능하면 속히 러시아 대표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ГАРФ, ф. 818, оп. 1, л. 110, л. 106.). 이에 러시아측은 9월 19일 외무대신 람즈도르프(В. Н. Ламздорф)를 통해 러시아 황제는 대한제국의 국익과 영토의 온전성에 대해 항상 심려하고 있으며,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즉시 서울에 러시아 대표를 파견할 것이

두만강 방면 양국군의 휴전협정 이후 10월 14일 총사령관 리네비치는 아니시모프 장군과 코사굽스키 장군에게 비준서에 따라 한국 북부 전체는 일본인들이 차지할 권리를 갖게 됨에 따라 러시아군은 철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두만강 좌안 러시아 영토 지역은 일본군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점령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환기시키면서, 제1네르친스크 카자크연대 소속의 4개 백인중대가 이 지역 전체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sup>81)</sup> 전쟁 종결 이후 11월 3일 한국주차군사령관 부 소장 하야시 타이치로(林太一郎)는 러시아군 위원 파블로프 대령과 회견을 통해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러시아군대는 이날부터 5일간 한국 영토 내에서 완전히 철퇴를 마치고, 일본군대는 그 사이 전초를 부거-회령 선으로 이동하고 러시아군이 철퇴를 마치면 전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환하였다.<sup>82)</sup> 하명에 따라 11월 10일 한국분견대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두만강이 팽창하여 러시아군 철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11월 30일에 이르러 비로소 두만강 좌안으로 도강을 마치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 수비대 1소대와 헌병 7, 기병 4명이 두만강 국경 경흥지역까지 진입하였다.<sup>83)</sup>

한편 일본에서는 천황이 10월 16일 「平和克復에 관한 조칙」을 발표하여 대내외에 종전을 공식화하였고, 함경도 진출 각 부대는 10월 19일부터 철수를 개시하여 같은 달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청진에서 배로 본국으로 귀환하였다.<sup>84)</sup> 12월 7일에는 만주군총사령부가 동경으로 개선하였고, 31일 대본영 및 총사령부도 해산을 완료하였다. 1906년 2월 24일 한국 북부 수비를 전담하는 북부수비대를 새로 배치하였다.<sup>85)</sup> 이로써 만 2년여에 걸친 러일 간의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Г А Р Ф, ф. 818, о п.1, л.110, л.2.).

81) РГВИА, ф. В У А, о п.??, л.28207, л л.81-82.

82) 『朝鮮駐劄軍歷史』, 169~170쪽.

83)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20일. 경흥군수의 보고.

84) 『朝鮮駐劄軍歷史』, 170쪽.

85) 『日露戰史』, 512쪽.

## 6. 맺음말

한반도에서 처음 시작된 러일전쟁은 1904년 5월 일본군의 압록강 도하 이후 만주로 이전된 이후 함경도만이 한국 내의 유일한 전쟁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초전은 육전과 해전이 병행되었고, 특히 함경도 전투의 경우 양자가 복합적으로 연계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전투를 벌인 곳 중에서 한국지역 내에서 본격적인 공방전을 벌인 것은 함경도이다. 지정학적 여건 상 만주와 같은 대규모의 전투는 없었지만 초기부터 종전 시까지 함경도에서는 국지전이 지속되었다. 이는 러시아 국경과 붙어 있다는 지리적 측면뿐 아니라 러·일 간의 제해권 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만약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일본 본토가 지장을 받고 그 반대로 일본이 승리할 경우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시베리아 등 러시아 동부 지역이 타격을 받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양국 모두 블라디보스토크 작전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육상에서는 러시아군이 일본군에 비해 병력 상으로는 우세하였지만 만주지역의 연이은 승첩과 해상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와 이후 발틱 함대가 일본군 제2함대 및 연합함대에게 연패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러시아군은 방어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05년 7월부터 러시아군 측은 한국 동북부에서 행동하는 군대를 한국분견대라 개칭하였고 일본군도 北韓支隊司舎部를 편제하여 각기 집결을 완료한 후 다시 대소규모의 전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때 러시아군 정찰대는 한국인 민병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하는 사례가 다수 보인다.

지도상으로 보면, 함경도 내 러·일간 전투는 남도와 북도 전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예컨대 북서부 일부 산악 오지를 제하면 함경도 명천-덕천에서 갑산-검산령-장진 등을 경유해서 평안도 덕천-강계-만포진으로 이어지는 선, 강원도 접경 원산-문천에서

두만강 하구 웅기까지 이어지는 해안 주요 거점지역, 경성-수성-부거-부령-회령-경원-훈춘(간도)의 러시아 방어선과 그 인접지역에서 전투가 이루어졌고, 주요도시와 도로를 망라하고 있었다.

동해해전 이후 대세는 일본군이 우세한 상황으로 전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우세로만 점철되지는 않았고 종전 직전까지도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러시아군과 일본군 모두 장마철의 강우로 인한 두만강과 대소하천의 팽창과 전염병, 식량 확보의 불가능, 연락두절 등의 요인에 의해 현상유지 상태에서 소규모 공방전만 지속되었다. 러시아는 일본군의 두만강 접근을 우려하였고 만주방면에서 전력을 소진한 일본군 또한 더 이상의 확전을 원하지 않았다.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 체결 결과 같은 달 16일 함경도 방면의 러시아군과 일본군 당국자도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한국 내에서 러시아군의 완전한 철퇴는 11월 30일에서야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강화조약 2달 후에도 변경인 함경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전투가 종결된 것이 아니었다.

요컨대 러일전쟁의 각 전투 중 가장 최후의 함경도전투는 총력전은 아니었으나 총 21개월 동안 국지전이 지속된, 지역별 전투 중 가장 최장기간 전개된 것이었다. 계속되는 전투와 더불어 전국 유일의 함경도軍政도 확장되었고 이는 전쟁 종결 후에도 1달 이상 유지되었다. 당연히 지역민의 인적 물적 정신적 고통과 희생이 막심하였다. 전쟁과 군정으로 국가적 차원과 민간차원의 동원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당시 함경도 지역상황과 지역주민의 현실적 처지 등에 관한 분석은 별도의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원고투고일 : 2013. 1. 1, 심사수정일 : 2013. 2. 19, 게재확정일 : 2013. 2. 25)

주제어 : 러일전쟁, 한국분견대, 북한지대, 한인의용군, 포츠머스 강화조약, 블라디보스토크, 함경도, 군정

<ABSTRACT>

## A Study on the Hamgyeongdo Battle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Cho, Jae-gon

The Russo-Japanese War was the global war which took place for the first tim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war covered the entire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north and north eastern regions of China and was the Imperial War that began and ended in the Korean Peninsula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make an in-depth study on the Hamgyeongdo Battle focusing on the concept of the military operations and organizations,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Russo-Japanese War.

The main stage of the Russia- Japan War which started on February 6, 1904 was moved to Manchuria, after the Japanese troops crossed the Aprokgang River (Yalu) in May the same year. During the war, Hamgyeongdo Province was the only battle area in the Korean Peninsular. But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the battle which took place in the area was the 'forgotten war' and the 'last war' which took place at the frontier area in the land. The Hamgyeongdo Battle was characterized as the land and naval warfare which was intricately waged around the border between the Korea and Russia, and the East Sea.

Winning or losing the war was significant for both Russia and Japan. But after the Japanese troops consecutive victories at the battles in Manchurian region and the Vladivostok and Baltic Naval Fleets were defeated in a row, the Russian forces lost their initiative. Since July 1905, as the Russia troops deployed its Korean detachment unit in Hamgyeongdo areas and the Japan established the command headquarters in the northern part of Korea, the battles resumed between them.

Hamgyeongdo Battle was waged in large areas. Except for remote

mountainous regions in some Northwestern parts, the main cities and roads were devastated by war. Although the Japanese troops continued to win the battles and gained the overwhelming upper hand, the things were in ups and downs. On September 5 1905, Russia and Japan signed 「Treaty of Portsmouth」 and the two nations agreed to sign a ceasefire treaty in Hamgyeongdo areas, in September 16. However, the withdrawal of the Russia troops was completed on November 30. The war lasted for 21 months causing human lives, leaving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s and damages in the region.

Key Words : Russo-Japanese War, Korean Detachment Unit, the command headquarters in the northern part of Korea, Treaty of Portsmouth, Vladivostok, Hamgyeongdo, Military Government